

研究論文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

안 미 영**

I. 서론	V.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드러난 문화적
II.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설화 교육	요소들: 정신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III. 설화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과 효용성	VI.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의 제시
IV. 설화 문학의 이야기 유형의 구조와 한국어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V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I. 서론

최근 들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이해가 필요함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단편적인 문화 지식을 나열한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 요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일반화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를 반영한 언어, 즉 과학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증시되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국어 교육에

* 본 연구는 2008년 8월에 경희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발표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국문학 전공(miyoung5051@hanmail.net).

서 한국 문화를 중시하며 이를 교육 내용으로 삼으려는 것은 당연하다.¹⁾ 실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지극히 실용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 기능을 먼저 익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언어를 통한 인간의 생활과 사고는 결코 외면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행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중요 일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점을 본 연구의 출발로 삼았다. 한국어 교육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화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맥락을 구성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고, 외국인 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끌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문학 작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함께 한국인들의 심층적 내면 또는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학 교육이 문법교수법이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좋은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문학’으로 보고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한국인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 등이 언어에 녹아 있는 ‘읽기’의 언어 수단으로, 문자화된 언어 지식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함께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개개의 학습자가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개인성장을 이룰 수 있

1) 대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문법적 사실과 번역 등이 중시되던 문법·번역 교수법 중심의 한국어 교육시기, 반복적인 구두 연습과 문형 연습 등을 중요시한 구두·청각 접근법 중심의 한국어 교육 시기, 그리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한국어 교육 시기로 발전되어 왔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한국의 문화 요소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초기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 자체를 배제해 왔던 것은 아니다. 이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교육적 환경 속에는 한국 문화가 차별적 문화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시기에서의 문화는, 지역 사정이나 배경지식으로 간주되어 학습하려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제공되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체험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문학 작품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문어적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순한 말을 할 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목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작품 속에 드러난 언어적 풍성함은 학습자들에게 어휘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고, 개개의 어휘나 통사적인 항목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풍부한 문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문자의 형성과 기능, 구조의 다의성,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습득하게 해 주고, 나아가 학습자의 글쓰기와 언어학적 단서에서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다른 작품을 읽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²⁾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본질적인 특성, 즉 가치관, 세계관, 신념, 기타 생활방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전문학, 특히 서사문학으로서의 ‘설화’ 문학을 한국어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대표적인 것, 그 자체가 가장 세계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문학 교육의 역사를 가진 설화 문학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설화 문학이 개인의 창작보다는 집단성을 배경으로 한 의식공동체로서의 민중문학이며, 더구나 설화는 구비 전승되면서 그 시대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의해 재해석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문학임을 고려할 때, 설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목표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는 기록문학과는 달리 문학을 한다는 의식 없이 삶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진실한 태도를 터득할 수 있다.

둘째, 설화는 말로 된 문학이므로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며, 말로 전승되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가 이를 통하여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능력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서 세련된 언어능력과 미적 인식력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 설화는 민중들의 삶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

2) 조일제, 『영어교사를 위한 영문학 작품 지도법』(한국문화사, 1997).

적,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바른 문제 해결력,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즉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넷째, 설화는 말로 된 문학과고, 구연되는 문학이므로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즐거움을 준다. 또 구연은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필수적이므로 구연을 통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다섯째, 설화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등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 정서 순화, 상상력, 통찰력, 심미성, 창조력, 도덕성 등이 함양될 수 있다.

결국 고전문학 작품, 즉 설화 문학은 세계문학과와 더불어 한국인만의 특수한 정서를 알 수 있게 하는 텍스트 자료여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감동을 줌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좋은 교육적 자료이며, 그 가치가 높기 평가된다고 생각된다.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문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물론,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설화 교육

설화는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발생하였으며,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 심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 이전의 구전문학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오늘에도 ‘설화’는 우리 곁에 살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거의 모든 대중적인 형태의 이야기 장르를 분석해 보면 설화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의 연속극, 영화, 심지어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변화만 주었을 뿐 큰 틀에서는 설화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설화가 시대를 뛰어 넘어 여전히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설화들의 소재가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그 끝맺음이 교훈적, 도식적³⁾이 되기 쉽다

3) J. G. 카텔타/박성봉(번역),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대중예술의 이론들』(동연, 1994), 83쪽.
“도식성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일련의 패턴을 말한다. 그것이 대중소설에서 추구되는

는 이유로 설화 연구를 편협된 시각으로의 논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설화의 모티프를 수용한 시, 소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설화에 대한 연구들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설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설화에 내재된 원리와 유형을 주목하는 구조주의적 시각,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심층의식을 주목하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역사적 변모 과정과 계급 계층의 염원을 읽어내는 사회학적 시각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설화의 가장 주된 특질인 보편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현재 한국 소재의 대학원 재학 중에 있는 고급 단계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업안을 제시하고, 그 실재를 들어 설화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유용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설화 작품을 선정하여 한국의 설화 작품과 동아시아권의 설화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국가 간 문화적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좀 더 한국 문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설화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과 효용성

설화 존재 양식이 지니는 문화 교육적 의미는 이야기 체험의 질적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 체험의 질적 깊이를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상상력의 고양에 가능하고, 이를 통한 수용자의 미적 체험과 세계관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화 그 자체는 교환 가치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역사를 통해 성숙되어 온 이야기이다. 다른 어떤 기록 서사물보다도 깊이 있는 이야기 체험을 위해 설화는 유용한 것이다. 같은 내용의 설화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말해 주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전달 매체에 따라 질적 차원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 문학 교육뿐 아니라 언어교육 분야의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가장 좋

것은 과거부터 길들여진 체험이 독자의 내부에 형성해 놓은 기대의 지평으로 인해 독자가 새로 접하는 작품에서도 쉽고 편안한 체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은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설화의 다양한 향유 방식 중에서 읽는 이야기보다 듣는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교사의 구연에 의해 들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설화는 구어(口語)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화가 지니는 문화 교육적 의의를 ‘직접 전달을 통한 정서 체험의 심화’와 ‘이야기 체험의 질적 깊이 확보’의 측면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교사가 들려주는 자료를 듣고, 학습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적극적 구연과 듣기를 전제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야기하기를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는 언어 교과에서도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모국어에서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이나 제2언어 사용자를 위한 교육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화의 구연만을 의미하는 한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자신의 일상 경험담에서부터 우화(fable), 전래동화, 민담, 전설, 신화, 성경의 비유, 개인담, 신앙이야기 등 다양한 서사 양식들을 구연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⁴⁾

이것은 설화 교육의 독자성의 측면에서 말하고 듣는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고, 동시에 말하기, 듣기, 문학 영역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말하고 들으면서 문학을 향유하는 활동이 바로 읽고 쓰고 보는 문학 활동으로 전이되며 확장될 수 있음을 잠정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상황의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설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설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문제이다. 말하기와 듣기 교육이 우리 일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의사소통이 참여자간의 삶의 공유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즉, 설화를 구연하고 듣는 활동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고전문학의 한 영역이며 갈래인 설화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설화의 본질적 측면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화가 말로써 전승되는 이야기에 의

4) McKay, Helen & Berice Dudley, *About Storytelling*(Sydney: Hale & Iremonger Pty Ltd., 1996).

도적인 첨가나 삭제는 거둬들여 집단의 사상, 공동체의 의식 세계를 반영한 구비 서사 문학이라는 점에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설화 속에 담겨진 전통문화는 대개 그 시대의 사상이나 의식적인 면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설화 문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해당 민족의 가장 원형적인 것을 탐구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동일시한 고대인의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진 관점으로 보는 신화वाद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문학 교육에서의 상상력이라 함은 언어를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정하며 그 이념을 실천하는 변형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상력의 공감대를 통해 문화적 과정에서 구체화되어 형성된다. 이러한 언어적 상상력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언어 능력의 신장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 설화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 생활문화를 학습하기 적합한 텍스트라는 점이다. 설화 문학은 개인의 창작보다는 집단성을 배경으로 하는 의식공동체의 민중문학이며, 구비 전승되면서 그 시대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꿈과 희망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문학인 것이다. 한국의 설화는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민족적·민중적 생활 감정과 습속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설화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설화는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 삶의 애환 등을 이야기하던 문학으로 오랜 세월 동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어 왔다. 당대에 널리 이야기되던 설화는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구연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설화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가치 있는 작품들이다. 다시 말해서 재미있고도 교훈을 주는 작품으로 검증받은 것들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효용성이 있다.

셋째, 설화는 비교문화적인 학습방법으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설화는 민족적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종족과 언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유형이나 화소가 발견되는 보편성 또한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설화의 비교 대조 과정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고유한 정체성을 찾게 해 주고, 그들만의 또 다른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보면, 설화 문학은 이야기로 된 서사물이며, 특성상 다른 갈래에 비해 설화와 같이 이야기로 된 서사물은 구조상의 친숙성이나 일상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설화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은 제2언어를 습득하려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자로 된 텍스트를 읽고 난 후 읽기·말하기로 전환하는 것은 독서 체험을 언어 능력으로 바꾸는 형식이다. 이것은 텍스트 내용을 설화로 제공했을 때, 그것을 읽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텍스트로 삼은 설화 작품의 내용은 반드시 특별하고 신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신성하거나 사실감이 있는 설화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게 되어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단순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며,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잠재된 상상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 문학을 통한 언어 교육의 참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해당 국가의 문화 교육과 학습자 개인의 상상력 함양으로서 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언어 능력의 가능성을 지닌 설화 교육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 그 내용과 그에 합당한 작품이 텍스트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의 연구자는 고전 문학으로서의 설화 중 한 작품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설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효용 가치의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제시해 보려고 한다.

IV. 설화 문학의 이야기 구조와 한국어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앞서 밝혔듯이 설화는 어느 한 민족의 생산물이나 소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민족의 사고 안에 형성된 보편된 언어로 구체화된 사고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콩쥐팥쥐’와 서구의 ‘신데렐라’를 보면 이들은 모두 계모담에 해당하는 이야기로서 같은 주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의 구조 또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외국어 교육을 할 때에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요구, 지적 수준, 나이, 성별 등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함은 물론이다. 학습자에 따라 교사는 하나의 작품을 선택해야 하며, 같은 작품이라도 교수 방법과 내용을 달리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 구조가 유사한 설화 작품을 선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수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선정된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에서의 비슷한 유형을 지닌 작품과 각 설화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도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 널리 알려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세계 여러 민족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鵲女傳說’, 일본에서는 ‘羽衣傳說’로 불리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白鳥處女’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이야기 구조는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각 나라의 이야기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구조

한국에서 전파, 전승되었던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설화의 이야기는, 한 나무꾼이 포수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사슴이 보은의 뜻에서 일러 준 대로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어 그 선녀와 결혼하였다는 것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과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설화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은 서구의 전래 동화 속에서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鵲女傳說’, ‘羽衣傳說’, ‘白鳥處女’ 등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전승 설화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가. 한 남자가 있었다.

나. 바닷가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옷을 감춰 그녀와 결혼했다.

다. 10년 후, 딸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서 날개옷이 있는 곳을 알아 찾아 입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2) 중국

가. 한 남자가 있었다.

나. 밭 가운데 나타난 새 한 마리의 모의(毛衣)를 감추고 그녀를 데려다 아내를 삼고 딸 셋을 낳았다.

다. 딸을 시켜 남편에게 물어서 모의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꺼내 입고 날아갔다.

라. 뒤에 모의를 가지고 돌아와 세 딸도 데려갔다.

(3) 말레이시아

가. 반달 무알의 왕의 아들인 말리 데만이 있었다.

나. 꿈 속에서 산 속 선녀의 집에 나타날 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다. 선녀들이 목욕할 때 우의 하나를 훔쳐, 그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라. 왕자가 예쁜 시녀를 보고 반하게 되자, 선녀는 숨겨둔 우의를 찾아 입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 왕자는 크게 후회하고, 하늘로 올라가 처자를 다시 만나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

(4) 보루네오

가. 한 젊은이가 살았다.

나. 사냥터에서 행복을 갖다 주겠다는 동물의 약속을 믿고 그 동물을 살려 주었다.

다. 개울가에서 목욕하던 한 선녀의 옷을 훔쳐 그를 아내로 삼았다.

라. 두 아들을 두었고, 그들이 열 살이 되었을 때 선녀는 깃옷을 찾아 입고 하

늘로 올라갔다.

- 마. 젊은이는 배 한 척을 지어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수평선 너머 하늘로 가서 선녀의 집을 찾았다.
- 바. 장모가 어려운 과제를 부과했으나 개미, 멧돼지, 물고기, 원숭이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해결하고 결혼하였다.
- 사. 젊은이만 지상으로 내려왔다

(5) 독일

- 가. 아내를 잃은 한 사냥꾼이 있었다.
- 나. 어느 은자의 위로하는 말에 따라 지반(池畔)에서 목욕하는 백조의 옷을 감춰 그녀와 결혼했다.
- 다. 사냥꾼이 우의를 감추어 둔 다락방을 열어둔 채 외출하여 아내가 우의를 입고 사라졌다.

2. 타문화권 설화와의 비교

앞에서 소개한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백조 처녀’의 이야기를 구성 요소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지리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산지가 많은 한국은 산 속의 연못으로, 섬나라인 일본은 바닷가로, 대륙지역인 중국은 밭으로 그려져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신분은 대부분 미천하고 장가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한국 설화의 경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으로, 중국은 ‘가난한 소작인’으로, 독일은 ‘아내를 잃은 사냥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담이라고 하는 구성 형식이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부족과 결핍 상태의 평범한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또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난한 서민층에 희망을 주기 위한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주인공의 신분이나 상황을 통하여 당시의 생활 터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농경지대나 삼림지대가 이야기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여주인공은 ‘선녀(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보루네오)’와 ‘백조(독일)’, 그리고

‘새(중국)’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즉 호수가 많은 지방에서는 ‘백조’가 주인공으로, 공간적인 배경이 밟일 때에는 ‘새’라는 동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산간 지방에서 전승되는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이리’라는 동물로, 섬지방의 경우는 ‘해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화의 여주인공의 현신은 지리적인 영향을 받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설화에는 이 작품 이외에도 ‘선녀’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선 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선’과 ‘선녀’라는 등장인물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 민족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친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선녀는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 이것은 신선한 존재인 선녀에게 나타나는 모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날개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올라간 새가 세 딸 생각에 다시 내려와 딸들을 데리고 올라갔음을 표현하여 이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남자 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방법인데, 한국 경우는 ‘두레박’을 이용해서, 보루네오는 ‘배를 한 척 지어’ 아내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야기가 구술되는 지역의 상황과 생활 방식이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설화의 경우, 두고 온 노모를 잊지 못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나무꾼이 설정된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자 그 슬픔을 수탉이 되는 것으로 비유한 대목은 지상의 노모에 대한 효사상과 영원히 헤어진 처자에 대한 혈육의 정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와는 구별되는 한국적인 정서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구조의 자체로만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설화에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즉, 두 이야기 모두 설정된 상황적 배경에서 이야기가 구술된 지역의 자연적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인공의 공통적인 특성은 가난하고 미약한 존재이나 동물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통해 행복을 얻게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고난의 극복을 통해서 헤어진 처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와는 달리 금기의 설정을 통해 효사상과 인정을 드러내는 민족적인 정서가 두드러지는 점이 더욱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드러난 문화적 요소들: 정신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선녀와 나무꾼’과 비슷한 유형의 설화들이 스칸디나비아, 몽골, 만주, 일본, 중국, 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견된 것에 주목해 볼 때,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이 ‘백조처녀’라 부르는 이 설화는 몽골과 만주에서는 종족의 시조에 관한 신화로 전해지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은하수와 칠월 칠석의 유래를 전하는 전설로 알려져 있다. 서양 학자들은 ‘백조처녀’의 기원을 『아라비안나이트』에서 찾고 있지만, 이 유형의 설화는 4세기에 중국의 간보가 쓴 『수신기』에 이미 실려 있을 정도로 기원이 오래 되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우르바시와 푸루라바스의 사랑 이야기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외국에서 전해지는 ‘백조처녀’ 설화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유형은 지상계 남자가 천상계 여인의 날개옷을 감추고 함께 살지만 나중에 날개옷을 발견한 아내가 떠나 버리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천상계 아내가 떠나 버린 후에 지상계 남자가 아내를 찾아 천상계로 가서 온갖 시련을 겪고 아내를 되찾는다는 이야기이다. 전자는 비극으로 끝나고, 후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아라비안나이트』와 인도 신화에 실린 이야기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상계 남자가 온갖 시련을 이기고 다른 세계에 사는 아내를 되찾는 해피엔딩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전역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이 설화는 구연자도 남녀노소와 계층을 불문하고 두루 걸쳐 있어 향유층이 아주 두터운 편이다. 한국의 경우 역시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기본 골격 내용은 나무꾼이 선녀와 결혼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화가 구비 전승되면서 그 기본 골격에다 특정 모티프가 누적되면서 당연히 설화 각 편의 성격도 일정하지 않게 되었다.⁵⁾ 알려진 바대로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영

5) 어떤 설화이든 각 편의 내용이 일정하지 않듯이 본고에서 자료로 삼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그 신화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① ‘선녀와 나무꾼’: 『한국구비문학대계』.

② ‘나무꾼과 선녀’: 임석재, 『한국구전설화1』(평민사, 1983).

웅적 성격을 지닌 인물도 아니며, 신성 장소를 무대로 삼지도 않았기에 청자나 화자가 진실하지도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워 민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범위에서 전승되고 우주론적 조망이 나타나고 대칭적 세계관이 짙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자취도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신화적 성격을 지녔다는 관점에서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설화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한 추출해 낼 수 있는 특징적인 문화적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설화에 드러난 한국인의 사상적 배경이다. 앞서 밝혔듯이 전승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모티프들이 누적됨에 따라 설화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대칭적 요소들이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먼저 인간과 동물의 대칭적 관계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각 편마다 등장하는 동물들은 설화의 이야기 안에서 특정한 사건에 등장하며 그 기능은 모두 같다. 예컨대 사슴, 노루, 고라니, 호랑이는 나무꾼의 포수로부터 숨겨주는 사건에서, 쥐는 나무꾼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사건에서 등장한다. 전자는 선녀와의 만남을 주선하며 승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후자는 천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과 동물이 대칭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동물이 신성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범상치 않은 능력을 지니기는 했지만 때로는 궁지에 몰려 나무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즉 서로가 결핍 상태에 있고 한쪽이 가지지 못한 기지나 능력을 다른 쪽이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사슴이 쫓길 때에는 나무꾼이 숨겨줄 수 있고 쥐가 배고플 때는 나무꾼만이 밥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나무꾼이 절박할 때는 사슴이나 쥐만이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문제 해결, 즉 고난 극복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창출하게 되므로, 토tem적 세계관이 그 기층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③ ‘닭이 높은 데서 우는 유래’ : 『한국구비문학대계』.

④ ‘선녀와 머슴’ : 『한국구비문학대계』.

⑤ ‘나무꾼과 선녀’ :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집문당, 1993).

볼 수 있다. 토tem적 세계관이란 씨족 집단과 특정한 동식물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동식물을 인간과 대등한 위상에 올려놓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토tem적 세계관에 입각했을 때 이 설화에서 등장하는 동물과 인간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두레박’을 통해 본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칭적 세계관이다. ‘두레박’은 물을 길어 올리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나오는 두레박은 천상계의 한계 상황을 지상계를 통해 보완하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의의를 지닌다. 웅덩이나 연못의 물이 생명감이나 생동력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천상계에는 없는 생동력의 원천이 지상계에는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선녀가 지상의 연못에 하강하여 목욕한다는 의미는 여성으로서의 생생력[出産力]을 유지하고 선녀로서의 영원한 젊음을 누리기 위한 갱생(再生), 정화(淨化), 갱신(更新)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더구나 천상의 여성인 선녀가 보름날 밤에 두레박을 타고 지상의 연못에 하강하여 목욕한다는 것은, 여자—달—물과의 접촉을 통한 생생력의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생산력과 풍요의 극대화를 꾀하는 행위⁶⁾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천상 선녀에게 나타나는 남편과 자식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 및 생생력의 결핍은 천상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결핍이다. 한편 신분의 높낮이가 있는 지상계에서 나무꾼과 같이 신분도 낮고 흠이만 있는 결손 가정으로서의 부귀영화는 커녕 결혼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천상계에서는 신분의 높낮이를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의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보면 천상계는 지상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대신 그 자체의 결핍 부분을 지상계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상의 신성(神聖)한 존재인 선녀와 지상의 세속적(世俗的) 존재인 나무꾼은, 각각 주어진 공간에서 해결 불가능한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聖과 俗이 결연해야 하는 필연성을 지니게 것이다. 이러한 상보적 관계는 상호의존적 천지관(相互依存的 天地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天上의 여자와 地上의 남자와의 결합에서 드러난 神과 人의 交婚 思想이다. 천상이라는 성역(聖域)의 구성원인 선녀와 한미한 신분으로 빈궁한 처지에 있는 俗世의 구성원인 나무꾼과의 결합에는 神人交婚의 結婚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설화에 드러난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토tem적 세계관, 상호

6) 김열규, 『한국의 신화』(일조각, 1980).

의존적 천지관, 신인교혼의 결혼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각 나무꾼과 동물, 천상계와 지상계, 천녀와 지남의 관계에서 비롯된 대칭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저변에는 한민족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형에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누적되면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설화의 각 편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양한 이야기 구조들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데리고 천상계로 올라가는 ‘선녀 승천담’, 두 번째 유형은 남편이 두레박을 타고 천상계에 올라가서 시련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나무꾼 승천담’, 세 번째 유형은 천상계에 올라간 나무꾼이 처갓집 식구가 내준 과제를 해결하거나 장인 또는 처남을 없애고 행복하게 사는 ‘천상 시련 극복담’, 네 번째 유형은 천상계에서 살던 나무꾼이 어머니가 그리워서 용마[天馬]를 타고 지상에 내려왔다가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수탉이 되는 ‘수탉 유래담’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설화의 남자 주인공인 ‘나무꾼’의 태도를 통하여 이 작품을 해석해 봄으로써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다.

우선, 나무꾼이 천상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지상적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하는 문제로 나무꾼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하는 점이다. 즉 나무꾼이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간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천상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고, 나무꾼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지상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나무꾼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타인의 조력에 의해 의거하느냐 자력에 의거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나무꾼이 삶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나무꾼이 동물이나 선녀의 도움을 받는 데 초점을 두면 타인의 조력에, 주체적인 의지나 힘으로 돌파하는 데 초점을 두면 자력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무꾼이 아내와 자식을 중시하느냐 노모를 중시하는 문제로 나무꾼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처자와 노모는 모두 가족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무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나무꾼’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당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 대응 방식이나,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족 중심적인 사상, 가치관 등의 정신적인 문화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VI.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의 제시

지금까지 설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이 설화 문학을 통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효용성을 살피고, 설화의 광포성(廣布性)으로 인한 이야기 구조의 유형성을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전통 사상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작품에 드러난 사상적 배경으로 본 연구자는 토tem적 세계관, 상호 의존적 천지관, 신인교혼의 결혼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세 번째로 제시한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수업에서 적용해 보려고 한다. 이 설화의 주인공인 나무꾼과 선녀의 결합으로 인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이라는 정신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실제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다.⁷⁾

앞서 밝혔듯이,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호주(Australia)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걸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鵲女傳説’, 일본에서는 ‘羽衣傳説’, 서구에서는 ‘白鳥處女(Swan maiden)’로 불려지고 있다. 이들 이야기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신화로, 어떤 나라에서는 민담으로, 혹은 설화의 형태로 전해져 그 전승 방식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기본 골격은 같다. 한국 내에서도 ‘나무꾼과 선녀’, ‘선녀와 나무꾼’, ‘금강산 선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전국에 걸쳐 채록되어 전하여진다. 기본적 골격에 새로운 모티프들이 누적되면서 변이되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유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다국적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한국어 교실 안에서 이 작품을 활용하여 수업한다면, 한국어를 교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연극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의 실재를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문학, 특히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연극 활동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화라는

7) 여기에 제시된 교수방법은 본 연구자가 실제 현장에서 수업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다. 학습자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인 3명, 중국인 23명, 몽골인 25명으로 모두 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5~6급의 고급 단계의 외국인 학생들이었다. 수업은 2주간(총 500분)에 걸쳐 행해졌으며, 하루에 50분씩 활용시간을 이용해서 1주간은 읽기 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같이 이끌어 나갔으며, 나머지 1주간은 역시 하루에 50분씩 하여 탐을 이루어 학습자 스스로가 대본을 만들어 보게 하며 역할을 배분하는 등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팀별로 연극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완성된 작품을 서로 발표하게 하였다.

장르의 특성상 오랜 시간을 두고 생성되어 해당 국가의 문화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 각 곳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높아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현하는 데 있어 설화 문학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중요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설화 텍스트를 활용하여 연극 대본을 마련하고 직접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말하기와 듣기는 물론이고 쓰기 활동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설화는 그 광포성 때문에 자국의 이야기와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들 간 토론의 기회도 제공하게 되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물론, 이야기 구조의 맥락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까지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수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야 하는데, 남녀 주인공의 공간 이동 및 시련 극복 양상을 중심으로 단락을 정리하고 각 단락의 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나무꾼이 동물을 구원하고 사슴으로부터 보은의 신탁을 받았다. [나무꾼의 지상 생활]
- 나. 천상의 선녀가 하강하여 지상의 나무꾼과 결혼하였다. [선녀의 지상 하강]
- 다. 나무꾼이 금기를 위반하여 선녀는 자녀를 데리고 승천하였다. [선녀의 승천]
- 라.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였다. [나무꾼의 승천]
- 마. 천상 시련을 극복하고 처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나무꾼의 천상 시련 극복]
- 바. 나무꾼은 지상의 가족이 그리워 천마를 타고 하강하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거나, 죽어서 수탉으로 환생하였다. [나무꾼의 지상 회귀]
- 사. 선녀는 아들을 시켜 나무꾼 시신을 하늘로 옮겨 장사지냈다. [나무꾼 시신의 승천]

이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짝 활동 내지는 연극을 통하여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학습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때, 이 설화의 각 편의 내용을 끝까지 들려줄 필요는 없다).
2. 교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3. 이 이야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교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4. 교사가 역할 속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을 연극에 참여시킨다. 예를 들어 편지글을 활용하여 그것을 듣고 이해하며 글쓰기로 나아가게 하는 활동들이 그것이다.
5.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도 연극 놀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갖도록 참여의 기회를 마련한다.
6. 학습자들이 이야기에 나오는 역할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로 질문과 대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다.

위에서 5와 6은 본격 수업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들이다. 학습자의 반응과 교사의 재량에 따라, 또는 수업 시간에 따라 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와 6은 수시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한 연극 활동의 방법으로 가장 독특한 것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그의 역할이다. 수업을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인 인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을 이끄는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여 교사의 수업 계획이 긴장감과 흥미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러한 새로운 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두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이 수업에서 추구하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 관계 및 의식의 탐구’라는 학습 목표에 도달해 가는 데 훨씬 쉬운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학습자들을 이러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는 인물이 교사가 새롭게 등장시켜야 하는 역할인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유형에서 드러난 화소들을 중심으로 위의 연극 활동의 방법을 적용시켜 보자.

먼저 ‘선녀와 나무꾼’의 중요 화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일부만을 들려준다. 이제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이야기에 맞춰 위에서 제시한 수업 방법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위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설화의 남자 주인공은 나무하러 산에 자주 다니는 인물이므로 같은 직업을 가진 또 다른 나무꾼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설화를 연극으로 활용했을 때, 관찰자 나무꾼은 주인공 나무꾼과 선녀의 천지의 공간 이동, 시련 극복 양상, 금기 파기 등으로 그들의 신분변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분상의 변화에 따르는 결핍이 발생하며, 이 신분상의 변화는 유교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수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나무꾼이 금기를 어기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자 자식들을 데리고 하늘로 선녀가 올라가 버리는데 이 때문에 나무꾼은 처자를 그리워하게 되고, 이야기는 문제 발생의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후 두레박을 통해 하늘로 가서 행복하게 살지만 지상에 있는 노모를 그리워하게 되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주인공 나무꾼이 또다시 금기를 어기게 되어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 이야기의 발단부에서 두 남녀 주인공은 존재의 근원을 달리하는 인물들로 가족관계가 결핍된 존재로 나타난다. 즉 위에 제시된 단락별 이야기 구조에서 (가) 단락의 상황에서는 나무꾼과 선녀 모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신분만 나타난다. 선녀는 옥황상제의 딸[女]일 뿐이고, 나무꾼은 노모의 아들[子]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신분(子女/夫婦/父母) 중 子, 女만 나타나고 夫, 婦와 父, 母의 신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선녀에게는 婦와 母의 신분이 결핍되어 있고, 나무꾼에게는 夫와 父의 신분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신분 결핍 상황에서 선녀는 지상에 뜻을 두게 되어[목욕], 나무꾼과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아내[婦]와 어머니[母]의 신분을 갖게 됨으로써 결핍을 해소한다. 한편 (나) 단락에서의 나무꾼은 노모의 아들, 선녀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子, 夫, 父’의 세 가지 신분을 모두 갖추게 된다. 그러나 나무꾼의 이러한 행복은 선녀가 새롭게 인식한 딸 신분의 결핍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 단락에서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개옷을 찾아 입고 자식들과 승천한다. 다른 나라의 설

회에서 보면 대부분 여인의 천상 복귀 시에 자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 설화의 경우, 자식을 데리고 승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선녀가 자식에 대한 어머니[母]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승천함으로써 나무꾼에 대한 아내[婦]로서의 신분에는 결핍이 생기게 된다. 금기 위반으로 나무꾼은 ‘夫’와 ‘父’에 대한 가족관계의 결핍이 생겨 다시 기점 상황의 자의 신분만 남게 된다. 나무꾼이 ‘夫’와 ‘父’에 대한 가족관계의 결핍으로 좌절하여 죽거나 수탉으로 환생하는 비극담으로 이야기가 종결되기도 한다. (라) 단락에서 나무꾼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신분상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시슴의 도움을 받아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고, 선녀와 재회함으로써 ‘夫’와 ‘父’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러나 지상에 남아 있는 노모로 인해 ‘子’의 신분이 결핍된다. (마) 단락에서 이러한 나무꾼에게 선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는 선녀가 아내[婦]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나무꾼은 노모에 대한 신분상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선녀로부터 천마를 얻어 타고 하강하여 어머니를 만나 아들[子] 신분의 결핍을 해소한다. 그러나 나무꾼은 그가 지닌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선녀가 부여한 금기를 위반하여 재승천에 실패한다. 나무꾼은 수탉으로 환생하거나 죽게 되는데, 나무꾼이 수탉으로 환생하여 천상을 향해 우는 것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신분상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사) 단락에서 천상의 선녀는 나무꾼의 죽음으로 인해 아내[婦]의 신분에 괴리가 생긴다. 이에 선녀는 아들로 하여금 남편의 시신을 천상으로 옮겨 장사를 지낸다. 이것은 아내로서의 신분적 결핍에 위안을 삼고자 하는 가족의식의 반영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설화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천지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설화를 연극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가 같이 수업하면서 등장시킨 제3의 인물, 즉 관찰자 ‘나무꾼’으로 하여금 학습자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 설화의 이야기를 편지 형식을 통해 전달한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천지간 공간 이동, 신분상의 변화에 의해 가족관계에 결핍이 생기고 등장인

8) 이상으로 볼 때,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의식인 三從之道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三從之道’는 여자를 중심으로 파악한 신분 관계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물들에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들을 적는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마치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후 제3의 등장인물인 관찰자 ‘나무꾼’과 연극에 학습자들 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연극에서 벗어나 이 수업에서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인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의 탐구’라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팀별로 쓰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설화에 담겨 있는 이야기 단락의 유형과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전통사상들, 그리고 이야기의 각 단락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가족의식 등을 정리하여 한 편의 글로 완성해 본다.

지금까지 설화 문학을 활용하여 연극 활동으로 수업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제시해 보았다. 편지글, 금기 위반 시 경고문 쓰기, 한 편의 글 완성하기, 에서이 쓰기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극적 방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활동도 아우를 수 있다고 본다.

VII. 결론

최근 들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도 어학 교육 중심에서 문화 교육 중심으로 그 영역과 질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부교재로서 문학과 문화에 관한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학, 문학, 문화 교육의 통합적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2언어를 습득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해당 국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진정한 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언어 능력의 향상, 문화의 적극적 이해,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꾀하는 것을 진정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은 그 효과를 더할 수 있다. 특히 고전문학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상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생활양식을 가장 잘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언어교육을 한다면, 양질의 한국어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언어, 문화, 정신, 가치관, 풍속 등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문화 교육과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학습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심미적 언어 교육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설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을 연극 활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안하였다. 설화 문학의 특성상, 보편성과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성, 유형화된 이야기 구조 등을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측면으로 보아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정신문화적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대칭적 세계관에 따른 한국의 전통적 사상적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천지간의 공간 이동과 신분의 변화에 따른 결핍·충족의 양상을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연극 활동 내지는 짝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지만 앞으로는 사회문화적 측면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는 한국 고전문학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현대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활발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서울: 일조각, 1980.
-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서울: 집문당, 1993.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서울: 평민사, 1987~1990.
- 조일제, 『영어교사를 위한 영문학 작품 지도법』. 서울: 한국문화사,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J.G 카웰티/박성봉(편역),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대중예술의 이론들』. 서울: 동연, 1994.
- McKay, Helen & Berice Dudley, *About Storytelling*. Sydney: Hale & Iremonger Pty Ltd., 1996.

국 문 요약

최근 들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도 어학 교육 중심에서 문화 교육 중심으로 그 영역과 질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2언어를 습득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해당 국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진정한 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언어 능력의 향상, 문화의 적극적 이해,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꾀하는 것을 진정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은 그 효과를 더할 수 있다. 특히 고전문학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상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생활양식을 가장 잘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언어교육을 한다면, 양질의 한국어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언어, 문화, 정신, 가치관, 풍속 등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문화 교육과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학습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심미적 언어 교육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설화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을 연극 활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안하였다. 설화 문학의 특성상, 보편성과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성, 유형화된 이야기 구조 등을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측면으로 보아,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정신문화적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대칭적 세계관에 따른 한국의 전통 사상적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천지간의 공간 이동과 신분의 변화에 따른 결핍·충족의 양상을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문화 이해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연극 활동 내지는 짝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지만 앞으로는 사회문화적 측면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는 한국 고전문학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 투고일 : 2008. 7. 11. ● 수정일 : 2008. 10. 20 ● 게재확정일 : 2008. 11. 28.
- 주제어(keyword) : 고전문학(a classical literature), 문화(culture), 설화(narrative literature), 한국의 가족관계와 가족의식(family relation and family consciousness of Korean).